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7.1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담 당 자	윤 현 철 사무관 (02-2100-2951)		

**제 목 :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
‘20.9.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
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◆ 일부 언론에서,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한 100조원 넘는 대출의 만기가 8월부터 도래한다고 보도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
- 『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』을 마련하고, 4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.
-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‘20.9.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(개인사업자 포함)에 대해
- 코로나19로 직·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,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.
- 따라서,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(개인사업자 포함)의 경우에도,
- ‘20.9.30일 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한다면,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.

- ☐ 또한,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